열린세상

위기 속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정진탄
월간국장 겸 논설위원

미국 인기 여류작가 다니엘 스틸의 최신작 '네이버스' (Neighbors)는 인간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는데 평소 왕래가 전혀 없던 이웃들이 지진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당대 최고 여배우의 웅장한 주택에 모여들어 수 주간 함께 지내게 되면서 온갖 치부와 추함, 그리고 휴머니티를 표출한다.

세계적인 영화배우와 감독, 첨단기업 CEO, 잘 나가는 정형외과 의사, 레전드급 맹인 음악가 등이 등장해 그들만의 특이한 삶을 공개한다. 물론 지진이란 자연재해를 통해, 그러니까 지진이 '코쿤' (cocoon·누에고치 같은 보호막)처럼 안락하게 지내던 이들의 생활을 통째로 깨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영화배우와 감독의 비정상적인 생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의사의 아내 구타와 아이 학대, 뜨는 스타트업 사장의 여색본색, 있는 자에게 빌붙어 기생하는 집 관리자의 비굴함과 사기극, 퇴역 군인의 시원시원한 해결사 역할, 맹인 음악가의 지혜와 혜안 등이 어우러진다.

재해·재난으로 드러난 실상

특히 스페셜한 인물의 허접함, 명성을 앞세운 이들의 추한 민낯이 눈길을 끈다. 흥미진진한 캐릭터 묘사와 속도감 있는 스토리가 책에서 손을 떼지 못하게 한다. 천재지변이란 지진을 통해 인간군상을 들춰낸 점이 독특해서 개인적으로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작품이었다.

이처럼 허구 속 세계였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현실 속에서 재난·재해, 또는 인재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는 우리 삶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였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윤을 좇아가는 기업, 이런 기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관할 기관, 주거 건물을 재산 증식으로 보는 영끌 투자인, 물론 자기 주택 소유를 간절히 바라는 소시민과 실종자 수색에 여념이 없는 구조대, 붕괴 현장의 질서를 지휘하는 경찰·행정기관 수장의 모습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 그날도 보통의 하루처럼 지나갔더라면 이런저런 우리 사회의 치부와 민낯이 도드라지지 않았을 것인데 재난으로, 인재로 확 열려버렸다. 건설업체의 무리한 공기 단축, 불법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이윤을 위한 자본주의가 '아파트주의'로 변해버린 슬픈 자화상이 몸 둘 바를 모르게 했다.

이런 위기는 우리를 뒤흔들어놓는 동시에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가기도 한다. 사고 현장 주변의 자원봉사자들이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며 구조 관계자들의 노고에 힘을 보탠다. 지역민 또한 붕괴 현장을 보며 치를 떨면서 삶의 좌표를 다시 세우게 된다. 정부 당국자와 구조대, 광주시장의 현장 브리핑을 접하며 시민들 간 어떤 결의와 결속을 다지게 된다.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향하는 여정 속에서 발생한 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는 매우 가슴 아프다. 희생자 및 가족, 사고 이해 당사자에게는 현재 어떤 말도 들어갈 자리가 없겠지만 어떻든 광주는 새로운 삶의 환경, 도시 흐름을 타며 나아가는 중이다. 아파트 단지 전체를 다시 허물고 제대로 시공해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드는 것도 이런 흐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새 도시흐름 여정서 참사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듯 재난 속 지역민의 단합과 연대, 또 유가족을 위로하고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일 것이다. 붕괴 사고를 낸 시공사에 대한 지역사업 참여 배제 등 단호한 조치, 지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는 인간적 면모가 드러나는 계기를 맞고 있다. 붕괴 사고 이후 현장에서 24시간 숙식하며 실종자 수색과 안전을 지휘하는 광주 행정수장, 정부 부처 장관 등의 대처 능력과 역량을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고 이후 참정권 등을 통해 평가를 내릴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후진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 한결같을 것이다. 그 마음이 한데 모여 이번 참사를 조속히 극복하고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됐으면 한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선진 스마트도시 창조는 어려운 것 같다. 부디 이 아픔이 헛되지 않고 미래 지역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과정이기를 기원한다.

기고

코로나 블루에 대처하는 '언택트 평생교육'

곽현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

2020년 이후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일상은 직장, 교육, 여가,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이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신체적 건강 위협은 물론 우울감, 무기력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코로나 블루를 지독하게 느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대적으로 대면교육의 비율이 높은 평생 교육 참여에 많은 제약을 부여했다.

2020년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 이상이 평생학습 참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거나 취소 중단을 경험했다고 한다. 은퇴자나 가사전업자 등을 포함한 무직집단, 60세 이상 고령집단, 고졸 이하 학력집단의 평생교육 참여가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평생학습을 수료한 이들 중 비대면 교육의 방법을 전부 또는 일부 활용한 이들은 8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교육 방식의 평생교육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시는 이에 발맞춰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적으로도 활력있는 삶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평생교육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광주시민을 비롯한 온 국민이 언제나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광주사이버학습센터인 '시사점' (http://sisa.or.kr)이 있다. 생활건강, 취미, 인문, 문화예술, 3대뉴딜, 취·창업, 자격증, 정보화, 외국어 등 250여 개 이상의 다양한 강좌를 무료로 골라 들을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기를 권한다.

학습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 등 성인 문해(문자해독) 능력 향상을 위한 전국 최초 문해교육용 앱인 '비그플(비문해자 그들을 위한 플랫폼)'도 활용할 수 있다.

2021년의 경우, 5만5,000명의 성인이 '비그플 앱'을 이용해 문해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비문해자들의 학력 취득은 물론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한몫을 담당했다.

참고로,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 4,153만명 중 408만명(9.8%)이 중학 학력 미만이며, 우리시는 94만여 명(8%)이 중학 학력 미만이다. 이들이 문해교육의 잠재적인 수요자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 강사를 양성,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아동, 장애인,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용 디지털 리터러시 교안을 제작, 장애인 대상 활용 교육에도 나선다. 시니어 대상 활용교육의 한 예로,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접목해 해외 유명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을 언택트로 떠나는 여행, 즉 문화예술과 4차 산업혁명이 만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급격히 변해가는 불확실성의 현대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며, 나아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필수역량과 품격을 갖춘 성숙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길일 것이다.

코로나19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슬기로운 생활의 일환으로 올 한 해 언택트 평생교육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풍성하게 가꿔보는 것은 어떨까.

독자광장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자

고유가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저렴하게 난방을 할 수 있는 화목보일러가 요즈음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서 겨울철 농촌주택에서 화목보일러를 많이 사용해 화재 위험성도 더 높아지는 계절이다.

주로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화목보일러는 화재 발생 시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난방기기의 올바른 사용법 숙지와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우선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고 보일러와 주택의 경계벽에 닿는 부분은 콘크리트와 같은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시공하도록 한다. 특히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재질의 샌드위치 패널 또는 플라스틱 자재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연기의 배출을 위해 연통은 보일러의 몸체보다 2m 이상 높이 설치하고 연통 끝은 T자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연통 내부는 적어도 겨울철은 한 달에 한 번, 여름철에는 두 달에 한 번 이상 청소해 연기와 유해가스가 배출이 잘되도록 한다. 그리고 땔감 등은 보일러에서 나오는 열이 미치지 않는 안전거리 이상의 거리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보일러실 주변에는 초기진화를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이러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화목보일러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므로 땔감은 충분히 건조된 것을 사용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한다.

둘째, 목재 등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고 생활 폐기물 등은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화목보일러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료를 태우면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반드시 연결부의 결속상태를 확인해 사용한다.

넷째, 사용 후 남은 재에는 열이 남아 있으므로 물을 뿌리는 등 반드시 냉각한 상태로 처리해 화재 발생을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화목보일러 화재 원인은 대부분 사용자의 부주의와 안전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나와 우리 주위의 안전을 위해 화목보일러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를 희망해 본다.

/김용호 화순소방서장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수도 고장신고	121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전기고장 신고	123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응급의료센터	133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편집부 (062) 720-1073
경제부 (062) 720-1066~67 논설실 (062) 720-1006
사회체육부 (062) 720-1050~53 전산실 (062) 720-1033
사회2부 (062) 720-1043 월간국 (062) 720-1007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판매국 (062) 720-1004
문화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1099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관리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 TEL (062) 720-1050~53 • 사회부장 010-5601-2219 • FAX (062) 720-1080 •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 TEL (062) 720-1016~17 • FAX (062) 720-1020 • E-mail jnmi1000@hanmail.net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사설

광주·전남 오미크론 차단 고삐죄야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정부가 기존 방역 체계를 바꿨다. 광주·전남지역에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늘리고 고위험군에게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에 대비해 방역체계를 전환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수본)는 최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투약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오미크론 감염자가 많은 광주시와 전남도, 경기도 평택·안성 4개 지역에서 오는 26일부터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중수본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지역인 광주·전남지역의 단순 감염 의심자에게 15~30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신속항원검사(본인 5,000원 부담)와 자가 검사 키트를 활용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줄였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조만간 코로나 5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 초반에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주말부터는 닷새 동안의 긴 설 연휴가 시작된다. 연휴 대이동으로 오미크론 확산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검사와 추적,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당국과 의료계의 협조와 소통이 중요하다. 지난해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 경증 환자 치료를 하는 동네 병·의원과 협의가 원활하게 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최근 방역패스 논란이 빚어진 것을 보더라도 획일적인 강압 조치는 위기 극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역 당국과 국민 개개인 모두 다시 긴장의 고삐를 죄야 할 때다.

비수도권대학 70% 사라진다는데

앞으로 20년 이후 비수도권 대학 35개 정도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적이다. 현재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이 130곳에 달하는 데 약 4분의 3이 사라지는 것이다. 학령인구 급감이 주원인이라지만 그 전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얼마 전 전남대에서 열린 '광주전남고등교육정책포럼'에서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18~24세 인구 및 대학 재적인구는 급감기와 폭락기를 거쳐 2042~2050년에 비수도권에는 전남대 규모의 대학 35~40개 정도면 충분할 정도"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대학생을 꼭 나이 20세 전후라고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 대학의 규모와 기능, 교수상도 재정립하는 등 대학생태계 전체에 새로운 판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맞고, 안 맞고는 별개로 지역 대학들이 위기에 몰린 것은 주지의 사실로 국가적, 지방정부적 차원에서 백방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 아직 속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대체로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 오죽하면 지역대학 발전이 곧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이란 말이 나오겠는가. 이번 전남대 교육정책 포럼 개최 시기와 동시에 부산대에서는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정부 청원문을 내기도 했다.

이들 7개 권역 대학은 위기 타개책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50% 채용의 무제 개선, 재정지원 확대, 사립대 퇴로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 강화, 지역대학 위기 극복, 젊은 산업인력의 지방 거주와 더불어 메가시티 및 행정통합 등이 톱니바퀴처럼 엮여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설 앞두고 '시민 방역의식' 다잡아야

기자수첩

오선우
정치부 기자

K-방역의 표본이라고 불릴 정도로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였던 광주가 최근 폭증하고 있는 확산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위드코로나를 선언한 이후 한 자릿수 확진자와 전국 최저치의 위중증률, 사망률을 자랑했었다. 지난해 12월 위드코로나의 영향과 오미크론 변이의 발생으로 다른 지역에서 확산세가 거셀 때도 광주는 브리핑하기 애매할 정도로 확진자 수가 적어 '청정 지역'으로 불릴 정도였다.

그러던 광주가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국적으로 오명이 늘고 있다.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정부는 할 수 없이 위드코로나 중단을 선언하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점차 잡혀갔지만, 광주는 그간 잠잠했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폭발이라도 한 듯 무시무시한 기세로 주변을 잠식해갔다. 감염에 취약한 노인·의료·교육시설에서의 집단감염도 주요 원인이지만,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에 피로해진 시민 방역의식 해이도 한몫했다.

결국 광주는 PCR 검사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긴급 휴원 등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가적으로 적용했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매섭다.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은 물론이거니와,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사회와 경제가 얼어붙지 않도록 이제는 시민 차원의 각성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설 명절은 앞으로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좌지우지할 분수령이다. 앞서 광주시는 설 명절 기간 이동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절 때마다 늘어나는 귀성·귀향객 수는 불안 요소다.

집 밖에 나서지 못하는 답답함과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향수는 이해하지만, 나 한 사람의 감염으로 끝나는 게 아닌 주변 이웃은 물론 지역 공동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초기 맞았던 명절, 전 국민이 합심해 이동 자제 캠페인을 벌이고 몸소 실천할 정도로 높았던 시민 방역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